

조계종·선학원 同根의 역사를 살피다

김광식 교수, <문·사·철> 43·44호서 고찰

“조계종과 선학원을 지칭하는 내용에는 ‘같은 뿌리’라는 성격이 있다. 하지만 조계종은 조계종의 입장에서, 선학원은 선학원의 입장에서 각각의 우위성, 주체성을 당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했다. 이런 역사 인식은 역사성, 객관성, 보편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

흔히 ‘같은 뿌리(同根)’라고 불리는 조계종과 선학원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는 <문학·사찰·철학> 43·44호(합본)에 기고한 ‘조계종과 선학원 同根의 역사 및 이념’을 통해 현재 조계종과 선학원의 역사 인식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냉정한 성찰을 통해 현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선학원 연구가 태동과 전개 과정 및 이념 등을 다루면서 조계종단과의 연관성을 주목해 다루지 않았고, 현재 조계종 역시 자신의 입장에서 우위성을 역사를 통해 입증하려 보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조계종·선학원 각자 입장서
우위성·당위성을 이해·설명
역사적 객관성 문제 제기해

조계종, 근대불교 유일 계승
선학원은 변화 촉매제 역할
냉정한 역사 성찰 이뤄져야
공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

김 교수는 “현재 조계종 역사에서 1962년 통합종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이전의 불교사를 배척·간과할 가능성을 유발한다”면서 “선학원의 경우에서도 선학원을 만들고 현재까지 유지해 온 주역인 승려들의 출신·연고 사찰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논문의 대부분을 선학원의 태동과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학원이 민족불교, 정화불교, 선불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 1910년대 임제종 운동에서 나타난 민족불교운동을 계승한 선학원은 일련의 불교 운동의 거점이었고, 이는 범어사 등 전국적인 수좌 및 선원을 기반으로 활동이 전개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조계종과 선학원은 일제 식민지 불교를 극복하려는 저항과 대항, 대결의식에서 나왔다”면서 “이는 역사와 이념이 동질적이라는 큰 틀에서도 당연한 이해이지만, 구체적인 출범, 존립도 같은 기반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러 “현재의 조계종은 1962년 창종된

것이 아니라 근대불교의 종단 설립 운동 및 교단체제를 계승한 유일한 종단”이라며 “선학원은 조계종단의 성찰, 정화운동, 재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거점이며 운동 분부, 이념을 제공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김 교수는 현재의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에 대해 양비론(兩非論)적으로 접근하며 대안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선학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전국 선원과 수좌들의 중앙기관적 성격을 가졌음을 분명히 하면서 현재의 선학원이 각처의 선원, 수좌와 일체의 연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조계종에 대해서도 상당 수의 조계종 스님들이 선학원에 사찰을 등록했지는데 대해서도 성찰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전후 사정을 포함한 조계종단과 선학원의 역사에 대한 냉정한 직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역사의식을 기초로 해 조계종과 선학원의 정체성 및 지향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생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sp79@hyunbul.com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사진 가운데)을 비롯한 인권위 스님들이 중국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올리고 있다.

“中전사자, 정토세상에 태어나길”

불교인권위 등, 2월 10일 파주 적군묘지서 영가천도제 봉행

한·중 불교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숨진 중국군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천도제를 올렸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지원·한상범)는 한중불교문화협의회·한중평화우호협회의와 공동주최로 2월 10일 파주 중국군전사자묘역에서 ‘제1회 중국군전사자 설날 영가천도제’를 봉행했다. 행사는 진관 스님의 중국군전사자를 위한 위령사에 이어 추모사, 영가천도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이날 함께한 불교상담개발원장 조성 스님은 “전쟁이란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기에 오로지 평화만이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서 “중국의 군인들이 전사한 영혼을 위로하고 정토세상에 태어나

길 간절히 발원한다”고 영가를 위로했다.

또한 안준석 한중불교문화협의회장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중국군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며 “우리는 속히 당신들(중국군)이 부모형제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길 부처님 전에 발원한다. 또한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들은 하루빨리 그 유해를 찾아고 향으로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진관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조성 스님, 안준석 한중불교문화협의회 공동회장, 한중불교문화협의회 부회장 성범 스님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울산 간월사지 정밀조사 된다

울산시, 올해 문화재 보존 정비 계획 밝혀

울산 간월사지 시·발굴을 통해 정밀조사된다.

울산시는 “울산시는 시지정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위해 문화재관리 등 16개 사업에 18억 3,500만 원을 구·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울주군 간월사지 발굴조사다. 1984년 일부 발굴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었지만, 전면 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 조사는 시비와 군비 6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중구의 구강서원 관리 등 7개 사업에 9억 5,810만 원 △남구의 문화재관리 인부임 등 2개 사업에 2,100만 원 △동구의 시지정문화재 전승보호비 등 4개 사업에 6,450만 원 △북구의 박상진 의사 생가 관리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 4,220만 원 △울주군의 문물산시 지

정문화재는 총 136건(국가 지정 29, 시 지정 107)으로 시지정문화재 상시 예찰과 관리를 위한 문화재관리인부임도 이번 지원 사업에 포함되었고, 국가지정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재 돌봄사업’도 빠른 시일 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6억여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보다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가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6년 시지정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위해 지원된 사업비는 기초 지자체별 자체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특히, 올해는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와 기술 보급을 위해 전승보호비와 전수교육보조자 지원금을 각각 월 42%(30만 원), 25%(10만 원)씩 증액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발전과 보존에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개선형 가람지기2 프로그램 ‘호평’

기능 추가해 2억 미만 재정 사찰에도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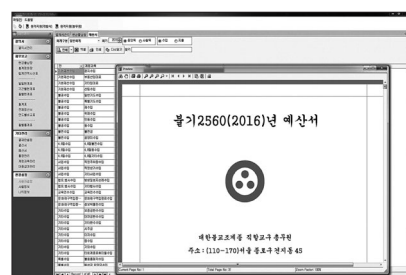
조계종이 올해부터 2억 미만 재정의 사찰에 보급하는 ‘개선형 가람지기2’ 프로그램이 사찰측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계종은 신년계획에서 올해부터 2억 미만 재정의 사찰에게도 신규 재무관리 프로그램(사진)을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은 1999년 12월 가람지기1의 1.0버전을 보급하기 시작해, 2002년 9월 2.0버전, 2010년 1월 가람지기 3.0버전을 보급한 바 있다. 2012년 7월부터 기존의 행정 전산처리 등을 간소화하고 종단 행정과의 연동성을 높인 가람지기 2를 대량사찰을 중심으로 보급해왔다.

이번에 보급된 프로그램은 가람지기 2의 개선형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재정 사찰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특히 재무관리 기능이 강화됐다. 조계종이 밝힌 사찰 회계관리 투명화의 기초작업이다.

먼저 개선형 가람지기2 프로그램을 보면 쉬운 결의서 작성메뉴가 도입됐다. 전산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쉽게 결의서를 등록, 삭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람지기2 프로그램에서 중무행



정을 통해 접수한 내역이 재무관리에도 연동되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9일 가람지기2를 설치한 원주 국형사 최영일 사무장은 “예전 회계장부보다 행정처리가 훨씬 간소화됐다”며 “먼저 회계 계산이 자동화됐고, 종단 서식에 맞춰 기입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아직까지는 사찰에는 없는 회계과목이 한번에 출력되는 단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조계종은 “일선 사찰의 중무행정을 돕고 종단과의 업무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보급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람지기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의 중무행정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월정사탑돌이 무형문화재 지정 가속화

2월 18일 월정사 법륜전사 탑돌이 재현 및 토론회 개최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에서 진행되는 탑돌이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탑돌이보존회는 2월 18일 오후 2시 경내 법륜전에서 ‘월정사 탑돌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탑돌이 행사로 문을 연다. 법고 소리에 맞춰 향타수를 오랑에 뿌리는 쇠향수 의식과 합창단의 2인식 육법공양에 이어 무용팀의 우슬착지 등이 진행된다. 또 법당돌이에서 등반기 의식과 바라춤, 정근이 이어진다. 본 행사인 탑돌이에서는 무용팀의 나비춤과 정근, 탑돌이노래 합창과 반야심경 독송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토론회에서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경남 한중대 교수의 사회 아래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의 ‘월정사 탑돌이의 기원과 변천’ 기초강연, △월정사 교무 자현 스님의 ‘탑돌이 기원과 한국적 전개’, △불참범음의례교육원학장 해일 스님의 ‘월정사 탑돌이 연행 보고’ 등이 진행된다.

월정사 측은 “예로부터 탑돌이는 한



월정사탑돌이 재현 장면.

해의 무사안녕과 함께 국은 융창 등을 기원하는 전통행사였다”며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탑돌이의 무형문화재 등재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국유사>에는 법성계 정진도는 법, 십바라밀 정진도는 법 등의 탑돌이 불교의례가 전래되고 있다. 현행 월정사 탑돌이는 ‘연등탑돌이’가 ‘법계도’와 결합된 ‘법계도 연등탑돌이’로 열린다. 본탑을 세바퀴 돌고 ‘법계도’를 상징하는 ‘르’자 형태로 탑앞에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일봉 호국기원 및 부처님과의 만남 출판기념 대법회

만주 큰스님 고희 및 포교 38년

불

축



은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대불종(만주사) 중경 만주큰스님의 고희를 맞이하여 「일봉 호국기원 및 부처님과의 만남 출판기념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0(2016)년 2월 좋은날

일 시 : 불기 2560(2016)년 2월 28일 일요일 11:00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59)
주 최 : (사)초대법왕일부문도중앙회
후 원 : 108TV·연합불교방송·현대불교신문
연락처 : 010-9257-0278 / 041)547-7792



한국불교대불종 만주사

상좌 : 현진, 무송, 성진, 성인, 성화, 성만, 성덕, 성호 합장